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제2회 충현 복음 심포지움 개최

주제 “교회와 국가”

3월 26일 갈릴리 홀에서

우리 교회 부설 한국교회성장연구원은 오는 3월 26일 갈릴리 홀에서 제2회 충현복음심포지움을 개최한다.

본 연구원은 89년도부터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들을 심포지움을 통하여 기독교적 신앙의 입장에서 재조명하고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작년에는 “남북 통일과 북한 선교”라는 주제로 한국 교회와 민족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복음화된 통일 조국이 우리의 가나안임을 확인하였다.

금년에는 “교회와 국가”를 주제로 심

포지움을 개최하는데, 윤영탁 목사와 김찬국 목사가 개최예배에서 각각 사회와 설교를 하게 되며 김영한 교수, 황우여 판사, 이종윤 위임목사가 발제를 하고 김명혁 교수, 이진우 변호사, 노정현 교수가 응답을 하게 된다.

이번 심포지움에 교역자 뿐 아니라, 각계 각층의 성도들이 많이 참석하여 ‘신학적 입장에서 본 종교의 정의와 역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바르고 진실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영어부 이태원에서 노방전도 가져

영어부는 비가 간간히 뿌리던 지난 2월 24일(토) 오후 4시 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외국인들로 붐비는 이태원 상가 입구 등 여러 곳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노방전도를 하였다.

영어부에서는 매월 1회 이상 노방전도를 나가고 있으며 서울 시내 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팀을 편성하여 호텔로비와 객실 등에 주보와 주간충현 및 전도지를 비치하여 전도와 우리

교회 영어 예배의 참석을 촉구하고 있다. 뜻이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가시관의 고통 나는 사랑부 겨울 계절학교



사랑부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주제 하에 지도목사인 김동렬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3월 1일에 겨울 계절학교를 개최했다.

교사 51명, 학생 51명, 학부모 11명이 참석하여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고통을 느끼는 순서를 가졌는데 가시로 만든 가시관을 쓰시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같이 느끼기도 했다.

또한 교사와 학생이 하나가 되어 서로가 하나의 지체임을 확인하는 지체운동을 가지기도 했는데 이 모두가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피택 안수집사·권사교육 중강예배

우리 교회 부설 성경연구원이 주관하여 작년 10월 17일부터 실시했었던 피택 안수집사 및 권사 교육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모든 교과 과정을 마치고 오는 3월 15일(목) 저녁 7시에 배다니 홀에서 이종윤 위임목사를 모시고 중강 예배를 드린다.

에바다부 겨울 계절학교

에바다부는 제2회 겨울 계절학교를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가졌다. 김성운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계절학교는 성경퀴즈 대회, 천국 운동회, 경전의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천국 일꾼을 양성하는 기회가 되었다.

어려운 가운데 많이 참석한 에바다부 학생들과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선생님들 모두 하나가 되어 은혜를 받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민심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⑨

그날 받은 충격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S 선생님이 갓난 아기를 안고 제 접무실로 들어오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강보에 싸인 아기가 이를 전에 출생했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와 함께 아기를 교회 앞뜰에 버리고 간 당신들은 생각하면서 서글픈 마음과 더불어 분한 마음까지 생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기를 받아 안고 한참 동안 말문이 막혀 있던 중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터져 나왔지요. 그것은 얼어붙은 숨결이 터져서 아기의 울음소리로 변하는 순간에 함께 일어난 동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당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오죽하

면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 몇 줄과 함께 아기를 버렸을까요. 토요일 오후 1시에 전화를 걸겠다고 하신 편지 내용을 보고 그날은 주일 준비로 전화 통화를 삼가는 날이었지만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정성껏 받아보았으나 끝내 당신들의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버린 자식에게 이름까지 지어주신 부모님의 아픈 마음을 생각하면 책망할 마음보다는 측은한 감정이 앞서는 것이 지금의 내가 갖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사랑하는 아기에게도, 그리고 아기를 낳으신 부모님들께도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종윤 목사

위임목사 동정

교역자 및 교구장 간담회

동구권 목회자 세미나 마치고 귀국
교역자 및 장로 연합 기도회 인도
제1 교구 가족 수련회 강의

이종윤 위임목사는 유고슬라비아에서 개최되었던 동구권 7개국 목회자세미나를 마치고 지난 3월 8일 무사히 귀국했다. 이목사는 이 세미나가 동구권 선교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평가하면서 충현교회가 이제는 동구권 선교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때가 왔다고 덧붙였다.

이목사는 3월 13일에 열리게 될 교역자 및 교구장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이목사는 참석자들과 함께 교구 활성화 위해 의견을 나누면서 교구 식구들이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다음날인 14일에는 충현기도원에서 교역자 및 장로 연합기도회를 인도할 예정이다.

한편 이목사는 16일에 개최되는 제1교구 가족수련회에 강사로 초청되어 특강을 하게 된다.

교역자 담당부서 이동

우리 교회 당회는 3월부터 그 동안 초등 5부를 지도하던 신표근 강도사에게 세계선교위원회를, 살롬경로대학을 지도하던 정복인 전도사에게 초등 5부를, 장영자 전도사에게 살롬경로대학을 맡아 지도하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무의촌 의료 선교사에 김양자 성도 임명

우리 교회는 복음 전도의 사명과 함께 사회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의료전도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간호사 김양자 성도를 무의촌 의료 선교사로 임명하였다.

김양자 선교사는 주일에는 의료전도부에서 교인들과 의료 상담을 하게 되며 평일에는 의료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농어촌을 순회하며 의료 전도를 하게 된다.

반정현 권사 피아노 기증

3교구 반정현 권사는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의 보다 나은 신앙 교육을 위해 피아노 1대를 교회에 기증했다. 앞으로 이 피아노는 초등 3부에서 사용하게 된다.

사무직원 모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응모자격: 군필자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세계 교인
- 구비서류: 당회장추천서,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사본
- 제출마감: 3월 25일

제출처: 충현교회 사무국

다녀와서 목회자세미나를 동구권



이 중 윤 목사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그리스도

누가 베를린(독일) 장벽을 무너뜨렸던가, 누가 부카레스트(루마니아)에 세워진 레닌의 동상에 밧줄을 매어 크레인으로 끌어내는 역사를 일으켰나, 누가 다뉴브강변에 고고히 세워진 부다페스트(헝가리)에서 빌리 그레할 목사 전도대회가 열리도록 하였나, 역사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이라면 얼어붙었던 프라하(체코슬로바키아)에 봄이 시작되었고 오지엑(유고슬라비아)에서 동구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된 것을 인간의 노력과 소원의 열매라고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폴란드가 변했고 불가리아가 변하고 있다. 알바니아가 터질듯 깨어질듯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하나님의 역사가 4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토록 굳게 잠겼던 동유럽을 이렇게 달라지게 했다.

1990년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유고슬라비아의 고도 오지엑에서 열린 동유럽 2개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개신교 목회자들의 회의에 초청을 받고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떠나던 사도 바울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필자가 서울을 출발한 것은 26일(월) 오후 7시 30분이었다. 월요일 오후마다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한국교회 성장연구원이 주관하는 국내 목회자 세미나 강연도 해외에서 하는 것보다 그 비중을 적게 잡을 수 없어 오후 강의를 마치고 비행장으로 달려가는 마음은 국민학생 시절 소풍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다 뿔뿔 날아갈듯 기대와 감사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유럽에서 유학생을 했었고 그 후에도 여러차례 학회를 비롯한 각종 사역이 있어 방문했던 유럽인들의 생활모습을 처음 보는 것도 아니건만 필자가 이토록 흥분을 하게 된 것은 단순히 사회주의 국가 체제하에서 닫혀진 사회상을 보겠다는 호기심보다는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어떻게 동유럽에서 불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동경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유고슬라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27일(화) 정오가 딱 지나서였다. 정확히 24시간 동안 비행을 한 것이다. 함께 동행한 김명혁 교수와 공항에서 환전을 하면서 갑자기 백만장자가 되었다. 화폐단위가 얼마나 높은지 미화100불을 바꾸었는데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백만 디나르를 받았기 때문에 돈물치를 주체할 수가 없어 우리들은 공항 버스를 타면서 운전기사에게 마음대로 받

을 만큼 가져가게 하였다. 대부분의 공산 국가들이 그러한 것처럼 낡고 퇴색된 도시의 모습은 옛날의 영광이 지나가 버린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죽은 도시와 같이 느껴졌다. 우리는 시외버스로 바뀌타고 유고의 제2도시인 오지엑(Osijek)으로 갔다. 오후 5시 30분 목회지에 도착할 때까지 질펀한 평야를 가르면서 평화스런 동유럽의 전원적 향취를 마음껏 느끼면서 좁은 버스 공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대륙의 공기를 마실 수가 있었다.

회의는 이미 시작되어 벌써 한 줄기 시원한 단비를 맞은 사람들처럼 모두가 기쁨으로 가득찬 얼굴들이다. 우리는 우리를 초청해준 피터 쿠즈믹 박사(유고슬라비아인으로 세계 복음주의 신학회 회장)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고 미국에서 오신 토마스 왕 목사(AD 2000년 복음화 위원회 회장)와도 해후하는 기쁨도 가졌다.

담장 속에서 간헐서만 살던 닭에게 구속이 없이 살도록 자유를 허락 한다면 해독을 안으로 다시 물려오듯 동유럽의 자유의 물결이 자유로 나타나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았다. 기쁨은 있

무관심을 자책해 보기도 했다. 아직도 사단의 사슬에 매여 있을 북녘땅 우리 동포 형제들의 영혼을 우리가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나. 북한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쉬임없이 기도하는 한국 교회의 형제들에게 다시 우러러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필자는 토마스 왕 목사와 더불어 루마니아와 체코슬로바키아 교회 지도자들의 초청을 받았다. 물론 김 교수도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했으나 그가 섬기는 신학교개학 관계로 부득이 서울로 먼저 떠나고 우리는 바울을 부르던 마케도니아인의 손짓을 외면할 수가 없어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각오하고 그들의 초청에 즉시 응할 수가 있었다.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필자가 출국 전에 동유럽 방문을 정부로 부터 허락받고 모든 절차를 밟았지만 당사국 비자를 받지 않은 터에 변하긴 했으나 국교가 없는 남의 나라 국경을 넘어 간다는 것은 말 못할 불안감까지 일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가겠다고 부름받고 나선 자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는

지방 엘림교회 테오도르 코드레르(Theodore Codrromu) 목사가 설명했다. 루마니아 혁명은 하나님이 하셨다. 도시엔 아직도 무장한 군인들과 탱크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고 데모대의 행렬이 합성과 함께 지나가고 법원에서는 차우세스쿠를 돕던 이들이 머리를 깎아온 채 수의를 입고 재판을 받는 장면이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

이같은 와중에서도 우리는 그날밤 또 하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스코틀랜드 교회 형제들이 루마니아 교회 형제들에게 긴급 구호품을 대형 트럭에 싣고 도착했던 것이다. 동구에서 가장 큰 교회로 알려진 엘림교회와 제일교회에서 우리들 두 사람이 온다고 집회를 준비하고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6시와 8시에 각각 교대하여 설교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6시에 제일교회에서, 그리고 그들은 동시에 엘림교회에서 집회를 열었다. 다시 8시엔 다른 교회로 강사들이 초청되었다.

놀라운 일이다. 한 곳은 1,500여 명이, 또 다른 곳은 2,000여 명이 회집하였다. 하루 3천 명씩 회개하던 초대교회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들이 공산치하에서 배우고 익힌 것 중 하나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었다. 무려 4시간이나 되는 긴 예배를 그토록 감격스럽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어찌 설교자의 위력이라 할 수 있겠나.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하였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붙잡고 일하신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3월 3일(토) 오전 10시 50분에 루마니아의 수도 부카레스트에 비행기로 도착했다.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비행기도 신기했지만 차우세스쿠와 가장 친분이 있었던 이가 다른 아닌 북한인 김일성 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욱 놀랐다. 독재자의 말로가 어찌했는지를 그는 루마니아를 통해 똑똑히 보았을 것을 생각하면서 고소를 금지 못했다. 북한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이 두 주 전에 모두 총환되었고 그들이 이곳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여권을 대사관에 보관을 하도록 단속을 했다는 얘기를 중국 상해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러 온 젊은 학생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차우세스쿠 궁전을 방문해 보았다. 인간치고는 참으로 못난 사람이 잘난 자리에 앉아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슬픈 역사의 현장이다. 도시의 건물 벽마다 종알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혁명을 가능케 했던 국영 텔레비전 방송국 건물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언론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며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미래를 위해 진리 편에서 용기 있게 싸운 자가 무엇인지를 무언으로 보여주는 산 증인처럼 고고히 서 있었다. (계속)

기쁨은 있으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황 초대교회의 회개운동 동유럽에서도 일어

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 결혼한 신부처럼 감격은 있으나 부자연스런 모습들이 눈에 띄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이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김 교수는 강연을 통해 한국 교회가 고난 중에서 꽃을 피운 교회임을 지적하면서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참으로 적절할 말씀이었다. 필자는 고난을 이긴 감격만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다가 신비적이면서 감성적으로 빠지기 쉬운 교회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과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며 실천할 것을 성경적, 신학적, 그리고 실천적 측면에서 강연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들에게 준비된 것 이상으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졌고 필자가 섬기는 우리 교회의 현황을 담은 비디오 상영까지 할 수 있어 한국 교회를 마치 저들의 모델교회처럼 제시할 수 있었던 영광까지 얻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제 겨우 땅에 묻혔던 씨가 발아하려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20여 명의 선교 현신자가 동유럽 복음화를 위해 자기를 보내달라고 손을 들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까지 있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 저들은 무엇이든지 찾아서 삼키려 했다.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인간을 이토록 황폐하게 만든 것을 생각하면 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도록 보고만 있었던 자신의 무능과

가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 일행은 프랭크 조시프(Frinc Josif) 목사의 자동차로 루마니아 국경에 도착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역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 루마니아의 제2도시인 티미슈아라(Timisoara)에 도착한 것은 3월 2일(금) 새벽 2시 30분이었다. 89년 12월 22일 루마니아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토크스 라자로(Tokes Laszlo) 목사가 시무하는 개혁교회를 방문했다. 그곳을 가는 도중에 우리는 혁명의 선봉에서 니콜라에 차우세스쿠 보안대의 탄환에 희생 제물이 된 수많은 이들을 애도하는 촛불과 조화가 도시의 중심가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불의와 거짓을 규탄하는 라자로 목사를 체포하려는 보안대원들을 군중들이 막아섰고 15만 명이 모여든 광장에서 라자로 목사는 마이크를 들고 사랑하는 루마니아인들이여 우리 모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외친 후 태풍 후의 정적처럼, 공산 치하 후 빼앗겼던 영혼이 살아난 듯 군중은 라자로 목사의 기도를 따라 다같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합창을 하었다고 한다. 그 기도는 주기도문이었다. 한 줄 한 줄 선포하는 라자로 목사의 음성은 멀리까지 퍼졌고 군중들은 천사의 합창소리처럼 깨끗하고 우렁찬 기도를 왕의 왕되신 하나님께 드렸다고 당시의 상황을 우리를 안내하던 그

새 봄과 더불어 각급 학교에서는 신입생들의 입학식이 거행되고 대학 캠퍼스에는 때묻지 않은 신입생들의 신선한 모습이 보이는 이들로 하여금 조용히 밀려드는 봄의 소리를 더욱 실감나게 해준다.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 대학교의 신입생들을 영어로 후레쉬맨(Freshman)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보다.

대학 캠퍼스에는 자유, 정의, 진리가 있고 또한 낭만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대학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토론하며 불의와 결코 타협하지 않는 정의가 넘치는 이상의 온상지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학에서의 낭만은 지식과 함께 어우러진 숭고한 것으로 거리의 값싼 낭만과는 엄격하게 경계지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대학을 흔히 최고 학부라고 부르게 되고 학문뿐만 아니라 인격의 도야를 위한 산실로 생각하는 것이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문은 과학적 이론과 방법을 통한 연구의 대상이 된다. 대학에서 과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더욱 광범위한 의미로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등의 모든 분야를 학문적인 이론과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하는 것을 총칭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선택한 한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는 전문지식의 교육을 한다. 이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의 집중적인 교육을 우선으로 하는 대학교육의 취약점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교양 지식의 결여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입생들에는 교양과목을 위주로 강의한다. 그러나 엄청난 과학 지식의 팽창으로 말미암아 교양강좌가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교양교육에 임해야 될 신입생들마저 이 교양강좌를 등한시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우리가 추구하기를 원하는 진리에 더욱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학문은 자연과학보다는 인문과학이며 인문과학에서도 철학보다는 신학임에는 틀림없다. 자연과학자는 확실한 증거를 기초로 해서 진리에

충현의 신입생에게 드리는 글



박 용 삼 장로

도달하려고 할 것이며, 문학가는 그의 작품세계를 통해서, 철학자는 사색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할 것이나, 신학자는 신앙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며 과학적인 공식을 통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신학자가 진리에 도달해 있지는 않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에서 대학에서 교양과목은 전문지식인에게 필수적인 학문분야이며 이의 깊은 연구를 등한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 대학에서는 모든 일들이 자율적으로 행해진다. 교수들과는 주로 학문적인 대화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학문 이외의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일을 수행해 나갔다. 학생들 사이에는 무엇보다 명예를 존중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의 자존심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소중히 했다. 어느 학생이든지 자신이 학생이기를 포기한 행동을 한 학생을 벌주기 위해서 명예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었으며 캠퍼스내에 학생용 감방이 마련되어 있었다. 지금도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가 보면 그 당시에 사용하던 학생감옥소를 볼 수 있다. 이처럼 대학에는 학생들만이 만족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이 자유에는 명백한 의무가 수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는 학생들의 자유가 지나치리만치 노골화되어 있다. 학생들이 학교학사행정 뿐만 아니라 교수와 교유권한인 강의 내용까지 간섭하기를 원하고 심지어 교수임용문제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 바로 오늘날의 우리나라 대학의 현상이 캠퍼스에서의 참된 자유를 빙자한 방종의 현실이 아닌가 우려된다.

주어진 4년이라는 시간은 학문의 연마와 인격의 도야를 위해서 주어진 제한된

시간이다. 또 그것을 하기에 합당한 곳이 대학이다. 이렇듯 아름다운 대학 캠퍼스가 방종과 무법의 아성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학에는 분명히 자유가 있고 낭만도 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문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학문의 목적은 진리 탐구일 것이다. 그런데 이 진리가 무엇인가 쉽게 정의를 내리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찬 신입생들은 지금까지 말한 것 보다는 또 다른 진리의 차원에서야 한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의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했다. 참 자유의 전제로 진리의 성취를 말씀해 주신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 14:6)라고 말씀하셨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서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요 18:37)라고 했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나”라고 하면서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서 진리의 의미에 대해서 묻고 있었다.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에서 서로의 관심사는 다른 내용이었다.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두고 왕이라고 하는 예수께 대해서 내가 진정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정치적인 질문이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시인하시면서 그 왕이 곧 진리이고 그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고 대답하시니까 진리가 무엇이나고 반문했다. 이 빌라도의 질문은 진정 진리가 무엇인가 알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의 관심은 왕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진리라고는 상관이 없다는 뜻의 질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질문과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심문이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이토록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고 만다.

시편 121편에서 우리는 진리와 연관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자가 어떤 연구의 결과를 물리·화학적인 현상에서 찾는 것과 같은 동일한 현상이다. 이러한 결과에서는 참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된다. 이 시편의 시인과 같이 산을 바라본 사람, 즉 세상의 어떤 신비로움을 깨닫는 사람은 그것을 근거로 산뿐만 아니라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다. 천체 망원경을 통해 태양계의 별들을 관찰하고, 메스로 인체를 해부하면서 생명의 신비로움을 보고서도 아직도 천체 망원경의 초점에 이르지 못하여 광활한 우주를 운행하시며, 생명의 신비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는 초월적이신 존재,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과학자라면 아직도 산 봉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우둔한 자임에 틀림이 없다. 깊은 사고와 사변으로 인생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철학자가 아직도 오리무중에서 해답을 얻지 못하고 허무주의에 빠져 자살을 기도한다면 그도 먼 산 봉우리는 바라보지만 그 산을 조성하시고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한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이제 새 봄과 더불어 희망찬 새 학기를 맞아 캠퍼스에 발을 내디디면서 새로운 학문의 세계에 도전하는 여러 신입생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학문의 아름다운 상아탑을 쌓아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 바벨에서 탑을 쌓던 인간들은 저들의 교만과 호기심의 잘못된 토대 위에 탑을 쌓아 올리다가 언어의 혼잡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사역이 헛되이 끝나 버리고만 역사적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과학의 이론과 방법을 동원하는 대학에서 하는 모든 연구는 귀한 것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토대를 가지고 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또 이러한 관점에서 진리가 추구될 때 참 자유를 누리는 지혜자가 될 것이다.

세기등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



조 선 근 장로

예수님은 “가서 모두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 20) 고 명하셨다.

위와 같은 말씀에 따라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10주년 때 ‘천국일꾼 양성’이라는 교회 목표 아래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에 박차를 가하여 1964년에는 한국에서 최초로 겨울 어린이 성경학교를 개최한 교회가 되었는가 하면, 1967년에는 주일학교 유년부, 초등부의 계단공과를 발간하였는데 이를 교단에서 흡수, 전국 교회에서 사용하게 되는 등 한국 교회의 활기찬 교육 운동에 충현교회가 그 주역으로 기여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계속 교인들의 내실화에 주력하여 충현성경학원, 교사양성부, 지도자양성부, 제자훈련을 통해 체계적인 교인 신앙훈련을 실시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교회 교육을 보려면 충현교회에 가보라.” 어느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모르는 이 말은 입에서 입으로 번져 주일이면 경향각지에서 전학을 위해 몰려왔던 사실을 그 당시 교사를 지낸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회고한다.

이런 자랑과 명예를 갖고 있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교회 교육에서 앞서고 있는가?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아마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 중에는 우리가 교육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다거나 교회 전체가 교육적 사명을 잃어버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성전건축이란 대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엄청난 일에 온 교회가 전력을 쏟다 보니 알게 모르게 소홀해진 점도 없지 않을 것이다. 금년은 벌써 새 성전 헌당후 2년째가 되는 해이니 만큼,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하루 속히 재정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신앙은 일생 동안 자라나기 때문에 교회 교육은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는 평생 교육이다. 또한 배우는 성도가 되지 않고서는 바른 헌신과 봉사를 기대할 수 없다. 새해 벽두에 이종운 위임목사는 교회 교육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어 “모든 성도는 누구나 학생이 되어야 한다.”면서 향후 충현교회가 내놓을 것이 뭐냐 묻는

다면 ‘교육의 장(場)’을 보여주게 하자고 특별히 강조하였다.

따라서 교회는 교육 목적을 지향하게 되었으며, 전체 교우들의 신앙교육과 생활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중에 있다. 교회 교육을 주일에만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실시하자는 뜻에서 ‘교회학교’라고 명칭도 고쳤다. 교회학교 교재개발이라는 크나큰 계획이 충현교회 주도로 꽤 진척되고 있다. 주로 주일을 중심으로 하는 27개 교회학교와, 평일 그리고 야간에까지 성경공부가 성경연구원 주관으로 요일별로 이뤄지고 있다. 제자훈련이 해마다 밀도 있게 실시되는가 하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성경통신강좌(주보 게재)도 개설했으며, 도서관을 통해 신앙에 유익한 많은 책들과 접할 수도 있게 하였다.

오늘의 세태를 볼 때, 학교 교육의 한계성이 전세계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교회 교육밖에는 희망이 없다고들 한다. 지난 날의 교육을 돌아보고 오늘의 교육을 잠시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로 계속 성숙 발전함으로써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하나의 좋은 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면 한다.

다음호 세기등은 최성현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 딸에게 띄우는 어머니의 편지

보고싶은 인수야!

이혜자 집사

인수야!

긴 머리 베이직색 코트에 뒤돌아 보며 문주 언니와 공항을 떠나던 너와 나는 헤어짐의 아픔으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지. 하늘을 쳐다보며 별을 헤아릴 끝없는 기도로 내 마음을 달래었던 몇 날 며칠.

내가 너의 따뜻한 손을 맞잡으며 “항상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을 꼭 붙잡아라.” 하며 속삭이듯 다짐하던 그때 그 일을 너는 잊지 않고 있겠지. 겨울 방학이라 잠깐 다녀 가리라는 것을 잘 알고 마음을 굳게 먹었지만 왜 그리도 이별이 슬펐을까. 지난 밤에도 너의 목소리를 들었던만큼 불현듯 보고픔에 남쪽을 바라보며 창가에 앉아서 좋은 아침을 맞는다. 고요하면 찬송하고 외로우면 기도하며 피로우면 주님을 바라보려고 서로 약속했었지.

애야, 여기 보내던 충현의 만나와 주간 충현을 동봉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충현의 만나와 주간충현은 참으로 지식을 알게 하는 공부 이상으로 마음에 참된 평강을 더해 주리라고 생각한다. 언젠가 내가 너에게 전화하던 날 너는 주간충현에 실려 있는 이종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읽고 있는 중이라기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른다.

사랑하는 인수야!

지난해 가을 큰 마음 가지고 임했던 충현기도원에서의 재자훈련이 올해에는 3월부터 5월 사이에 있다고 하는구나. 엄마는 결혼기념일이 들어 있는 꽃피고 새우는 5월에 이 훈련을 받을 예정이라. 이번에도 다녀와서 네게 편지 띄워 줄게.

너와 동생 정옥이가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밤을 지새우며 외웠던 두 사람 몫의 성경 말씀을 장로님 앞에 앉아 몇 있게 외우고는 거룩한 카운을 입고 먹물을 칠해 갈아 정성껏 암송성경책을 엮어 가던 그

추억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구나. 우리 셋이 모여 앉아 가정예배를 드리고 밤이 맞도록 어설픈 성서 지식을 토론하던 겨울 밤. 이제 생각하니 별로 아는 것도 없는 이 엄마가 믿음으로 너희들을 이해시키느라 무던히 애를 썼었지. 지난 모든 일들이 새삼스레 그리워지는구나.

지금처럼 내가 그리울 때면 우리가 행복했던 나날들을 돌아본다. 사춘기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게 믿음과 대화로 잘 성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린다. 아버지선 울산에서 사업에 전념하시느라 자주 올라오시지 못하셨어도 너희 남매는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었으니 감사할 따름이다.

그곳에서 감기로 네가 홀로 고생할 때 아버지께서 ‘여보, 빨리 인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러시지 않겠니. 그때 이 엄마는 부끄럼도 없이 전화를 걸어 흐느끼며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일도 잊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머금고 ‘아멘, 아멘’ 하는 너의 응답하는 소리를 들으며 너도 울고 나도 울면서 우리는 뜨겁게 기도했었지.

우린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너를 미국으로 유학 보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까야. 인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안심하고 떠나 보낼 수 있으시다는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엄마는 아버지의 믿음에 무척 감격했었다. 어느날 “아빠, 우리집 가훈은 무엇이었어요?” 라고 묻는 어린 너에게 아버지께서는 “우리집 가훈은 십계명이다.” 라고 하셨지. 이미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던 아버지와 함께 해주신 것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지.

요즘 너는 시편을 읽으며 잠이 든다고 했지. 매주마다 전교인이 참가하는 충현 성경통신 강좌의 진도도 시편이라. 물론 너는 새벽 2,3시까지 졸음을 쫓아가며 공부도 하고 악기도 다루어야 하느라 힘은 들겠지만 보내는 주보를 꼭 풀어보렴.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다오. 모쪼록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 3:15~17)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성령을 가까이 하며 언제나 새 힘을 얻게 하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 41:10)는 말씀을 기억하며 지내기를 바란다.

인수야, 3월이 오면 엄마는 더욱 바빠질 것 같구나. 크로스웨이 성경공부도 개

강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 위해 크로마 하프 연습도 더욱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 정오에 기도드리기로 했던 약속 잊지 말자꾸나. 아버지께서 술과 담배를 끊으신 지 6개월이 되었음은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산 증거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만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섭리인 것을 우리 모두 기뻐하자.

엄마는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역만리 미국땅에 주님의 사랑하시는 딸 인수를 홀로 두지 마시고 친히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이 교회와 상관이 있는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지이다’ 라는 이종윤 목사님의 축도를 들을 때마다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주무룩 흐른다.

보고싶은 인수야, 아침 햇살이 더욱 눈부시구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안녕.

■ 탐방-종탐모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없으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 종탐 바로 아래에 조그마한 방에는 주님의 일에 봉사하겠다는 열기로 가득한 젊은이들이 모여 있다. 1989년도에 시작된 이 모임은 오정수 장로님의 지도로 현재 약 30여 명의 인원이 봉사하고 있다.

교회 내에서 종탐 모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할 만큼 이 모임은 교회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만 하더라도 음향실에서 카메라 촬영, 음향 시설 관리, 녹음 담당 봉사, 교회에서 발행되는 각종 문서 발송, 보조 교사, 회계 보조, 전도 위원회 보조, 도서관 청소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만큼 종탐 모임은 교회 내에 봉사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감사히 봉사하는 것이다.

또한 종탐 모임은 주일 오후 3시경부터 약 30분간 기도회를 통해 믿음도 다지고

있다. 종탐 모임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이라면 봉사의 손길을 원하는 곳은 많은데 봉사할 인원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대학 2학년생이 주축이 된 지금의 회원을 청년부, 고등부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아직까지는 대의 홍보가 잘 되지 않은 까닭에 봉사를 하러 갔다가 엉뚱하게 문전박대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에 섬기는 자로서의 참 기쁨을 느낀다는 이들은 교회가 무척 크기 때문에 할 일은 산재해 있는데 교인들이 봉사하는 자세는 너무 부족한 것 같다고 아쉬워 한다.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젊은이들이 종탐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며 교회 내에서 봉사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종탐 모임으로 연락바란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1과 은혜언약과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경 : 갈4:4,5

요절 :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2:8)

찬송 : 410, 413

제20문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비참한 지경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다만 자신의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떠한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으며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지경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엡1:4).

제21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에 계속 한 인격에 두 가지 구별된 성품이 있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십니다(요1:14; 골2:9).

제22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실제적인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히2:4,4:15).

설 명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을 무조건 사랑하시사 자기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리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의 신분으로 오신 것이다.

질 문

1. 은혜언약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눅22:20)?
2.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히2:16, 17, 9:22)?
3. 예수께서 보통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히4:15)?